



(이노센스) <베스트레드> <탐핑크> <글로벌핑크> <파인핑크>

신품종 장미 5종 개발 성공

도농기원 6년여 연구, 이노센스 등 5종 품종보호 출원 색깔·상품성 우수·병해 강해...농가 로얄티 절감 기대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우수한 품질에 병해에도 강한 신품종 장미 5종을 개발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생활자원 연구과 기광연 연구팀은 2001년부터 6년여의 연구 끝에 장미 5품종을 새로 개발해 최근 국립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 출원을 했다. 이번에 개발한 신품종 장미는 줄기에 꽃 향송이 짙은 스탠다드 계통으로 '이노센스'(분홍·녹백색), '베스트레드'(적색), '탐핑크'(분홍색),

'글로벌핑크'(분홍색), '파인핑크'(연분홍색) 등 5종이다. 이중 '이노센스'는 줄기 윗부분에 가시가 거의 없는데다 꽃 모양이 우수해 부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탐핑크'는 향기가 있고 흰가루병에 강하며 타 품종보다 수량(數量)이 많다. 또 '파인핑크'는 꽃색이 선명하고 흰가루병에 강하며 꽃이 오래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육성된 장미들은 꽃 모양과 색깔이 뛰

어나며, 시설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흰가루병에 강한 특성이 있어 친환경 재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름철 흑서기에는 꽃잎수와 크기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30% 정도 빛가림으로 재배해야 한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의 대부분은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 품종으로 로열티지불액이 연간 70~110억원에 달해 장미농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이 확대 보급될 경우 장미농가의 로얄티 절감 효과와 함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지역은 175농가 76ha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 보존돼야”

문화재청 광주서 설명회 “근대문화유산 가치 높아”

문화재청은 21일 “현재 근대문화재 등록 예고중인 옛 동본원사(東本願寺) 목포별원(木浦別院·현 중앙교회) 건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을 만큼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지역인문 순회 정책설명회를 갖고 “최근 목포시도 목포별원을 보존

하지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등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존 방침이 결정되면 목포시와 협의, 문화재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보존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따라 목포별원 정비보존계획을 세워 문화재청에 건

축물 리모델링 비용 등 30억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면적 84평 크기의 이 건물은 1930년 초에 신축된 장방형의 단층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지는 목포시와 ‘활용가치가 높은 유산’이라며 철거를 반대하는 문화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고객의 소리 눈으로 듣겠습니다”

장성 전국 첫 ‘소리함’ 설치

장성군이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해 민원실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은 민원처리의 만족도에 따라 ▲만족할 경우 녹색 공 ▲보통이면 흰색 공 ▲불만족 시 빨간색 공을 소리함에 투입하게 된다. <사진>

장성군은 그동안 민원인 만족도를 수렴하기 위해 우편 만족도조사, 인터넷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왔으나 인지도가 저조하고 참여율이 극히 낮아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군정 참여율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에 수시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고재민기자 jbgo@



전/북/소/식

(주)상하 광주공장 고창으로 이전기로

광주에 있는 매일유업 자회사인 ㈜상하의 광주 치즈공장이 고창으로 이전한다. 전북도와 매일유업은 21일 전북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광주에 있는 상하 치즈공장을 고창군 상하면으로 이전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300억원을 들여 상하면 자룡리 2만3천평 부지에 연간 2천톤의 치즈와 유기농 유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매일유업은 현재의 광주공장 부지가 협소해 이전을 결정했으며, 고창군은 3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하는 국내 치즈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치즈 및 유가공품 전문 생산업체다. /고창=김종원기자 jwkim@

완도해양경찰서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

최근들어 각종 행정기관들이 앞다퉀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친절봉사는 기본이고 전화만 잘못 받아도 담당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일쑤다.

기쁜 소식

뒤에도 정문 경비자가 뒷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은 뒤에야 출입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몇십 분이고 기다려야 한다. 흔히 경찰관서 앞에 쓰여져 있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구호가 완도해경과는 무관한 듯 하다.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

변화 외면하는 완도해경

그러나 완도해경은 이같은 변화 흐름과 동떨어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는 완도군민들은 해경을 찾는 일이 부지기수다. 군청이나 경찰서보다도 훨씬 가깝게 느껴야 할 기관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민원인들은 해경 정문을 통과하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완도해경을 찾으면 먼저 정문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위압적 태도에 기가 죽게 된다. 신분이 확인



정은조 <사회2부 국장·완도>

계자들이 완도해경을 방문했다. 완도해경은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분확인 절차 없이 신속히 통과시켰다. 이소식을 전해들은 군민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힘있는 기관엔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민원인들에게만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행정 서비스가 지위나 권력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민들은 완도해경이 이제라도 변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ejchung@kwangju.co.kr

“애들아! 납치 당하면 이렇게 해”



구례경찰, 초등생에 납치 예방교육

최근 유아 납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례경찰이 21일 구례읍 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납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북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이 학교 4~6학년생 300여명은 경찰이 배부한 ‘유괴 예방 및 대처 요령’을 하나씩 진지하게 읽어 내려갔다. 이날 구례 경찰서 조장래 경비교통과장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특히 ▲남의 차를 절대 타지 말 것 ▲놀이터·학교길은 혼자 다니지 말 것 ▲낯선 사람이 ‘부도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

다’던가 ‘친척’이라고 하면 따라가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아이들에게 차량에 납치됐을 때 탈출 요령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이를 위해 구례경찰서는 이날 연식이 다른 승용차 4대를 동원했다. 의경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학생 1명이 대표로 차량 트렁크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 이인혜(13·6학년)양은 “경찰 아저씨들이 직접 탈출하는 것을 보여 주니까 더 실감이 난다”면서 “오늘 배운 것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영광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과기부 26억여원 투입 10월 완공
원격화상 등 첨단 비상설비 갖춰

영광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건설된다. 과학기술부는 영광지역 방사능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수습과 대응활동을 지원하는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센터를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최근 건설에 착수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4km 떨어진 군서면 만곡리에 들어설 방사능방재센터는 과기부 예산 26억여원이 투입돼 1만4천34㎡ 부지에 연면적 1천235㎡의 2층 건물로 건설된다. 현장방재센터는 방사선 방호·방재장비는 물론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AtomCARE)’과 연계한 원전안전 상황정보 수집설비, 원격화상회의 설비, 비상통신설비 등 첨단화된 비상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과기부는 2005년 월성에 현장방재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번 영광에 이어 울진과 고리 등 모든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에 방사능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탈모!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100% Natural Hair Treatment. Sons-Mo. Tel. 062)676-3545 / 062)432-3545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주)AMS교육 1600-0596